01 교회소식
올해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돼
WCDN이 미국, 호주, 케냐, 멕시코, 불가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매년 콘퍼런스를 개최해 기독의사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치료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다.

03 권능의 역사 1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놀랍습니다!"
WCDN 회장 채윤석 박사가 말레이시아 콘퍼런스에서 발표해 큰 호응을 얻은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와 쌍꺼풀 형성 사례.

04 권능의 역사 2
의사들도 놀란 치료 사례
2015 말레이시아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에서 발표된 하나님 역사 중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한 치료 사례들을 소개한다.

만민뉴스

제688호 2015년 5월 31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의사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다

제12회 WCDN 말레이시아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

WCDN 말레이시아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사진 1, 9)는 프란스 크론예, 츄웽취 박사 등의 특강(사진 2, 3)과 다양한 치료 사례 발표 뿐 아니라 예배와 찬양, 손수건 집회(사진 6), 각국 기독의사들간 교제를 통해 WCDN의 비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둘째 날 오전예배 시 설교하는 옹혹슈 박사(사진 7), 조직위원회로부터 이사장 이재록 목사를 대신해 감사패를 받는 채윤석 박사(사진 4), 권능팀의 공연에 찬양으로 하나 된 참석자들(사진 5, 8).

해마다 전 세계 기독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통한 치료 역사를 의학 자료로 입증해 온 WCDN(세계기독의사네트워크)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가 올해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됐다.

지난 5월 16~17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미국, 스페인, 노르웨이, 불가리아, 멕시코 등 전 세계 31개국에서 350여 명의 의사들과 의학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첫째 날, 조직위원장 다니엘 투라이아파 박사의 환영사에 이어 WCDN 이사장인 이재록 목사는 영상을 통해 "콘퍼런스는 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영성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사전 검증을 거친 총 9건의 치료 사례 발표가 있었다. 폐부종을 동반한 급성 좌심실 심부전증, 비루관 폐쇄증, 쌍꺼풀 형성,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증,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이상은 한국), 성격장애 치료(미국), 95% 뇌손상(말레이시아), 장간막 동맥 혈전증(미국), 선천성 뇌경색증(파로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 콩고민주공화국 주지사의 기도요청으로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뒤 콩고민주공화국 내 에볼라 바이러스가 종식된 사례 발표(WCDN 회장 채윤석 박사)는 참석자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3면 참조).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 츄웽취 박사의 '하나님의 초자연적 치유를 믿게 되기까지 나 자신의 여정', 황준하 박사의 인간의 질병 치료뿐 아니라 천기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다룬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란스 크론예 박사의 '질병의 영적인 근원' 등 특강 순서도 흥미를 더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림 시오 림 쉐리라는 여성은 하나님을 의지해 유방암을 치료받은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어 감동이 됐다.

더불어 현지어와 영어로 진행된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권능팀의 특송으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더해 주었다. 참석자들은 힘 있는 감동의 공연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 특별강사로 초청된 이희선 목사(만민 전지교회 총지도교사)는 첫째 날 손수건 집회를 인도했고, 둘째 날에는 '믿음의 분량'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희선 목사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로 회개의 역사와 각종 통증이 사라지고, 잘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등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졌다. 특히 티모시 승 박사는 뇌수막염으로 입원했다가 뇌사상태에 빠진 자신의 환자를 대신해 기도받았는데 이 환자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WCDN은 더욱 탄탄한 조직력과 영적 힘을 얻으며,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지식인과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을 영적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한 번 확인했다.

한편, 한국에 본부를 둔 WCDN은 초교파적인 기독의사들의 모임으로 매년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를 개최해 전 세계 기독의사들과 소통하며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16년 제13회 콘퍼런스는 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치료의 주님

당회장 이재록 목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4)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십자가의 섭리들을 살펴보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 인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섭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섭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도 참혹하지만 채찍에 맞으신 것도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로마 병사가 휘두른 채찍이 몸을 휘감으며 살을 찢고, 채찍 끝의 납덩이가 몸속에 박혀 다시 채찍을 낚아챌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고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셔야 했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종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범죄치 않으면 어떤 질병도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받으려면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받고 치료받았다 해도 다시 죄 가운데 살면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병의 근원은 죄이며 그 죄를 대속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지요.

2. 치료의 주님을 만나려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질병을 대속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마 8:17).

간혹 "연약하다.", "죄 버리기 힘들다."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고백대로 연약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지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다. 충만하다." 고백할 때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피곤도 능히 이기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치료받고자 기도받을 때도 "나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혹자는 "여전히 아픈데 나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가요?" 질문할 수 있는데, 이는 영적인 믿음에 대해 깨우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입술로만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실하게 믿어져서 고백할 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질병과 연약함이 떠났다."고 마음에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함과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도 못하면 여전히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받아도 "나는 아프다. 아직 낫지 않았다."고 믿으니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치료뿐 아니라 창조의 역사를 베푸셔서 어떤 질병이나 불구된 몸이라도 능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흥성회나 해외 연합대성회 때는 한꺼번에 무수한 사람이 치료를 받아 간증을 합니다. 단에서 나오는 기도만 받고도 암이나 에이즈를 비롯해 온갖 난치, 불치병을 치료받고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앉은뱅이 등 약한 것이 치료되며 때로는 찬양이나 말씀 중에 치료받기도 합니다.

3. 믿는다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병을 대속하셨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며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은 세상의 모든 질병을 총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으며 혹시 질병에 걸렸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보기에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의가 다른 것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이나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것도 상대편에서는 불의할 수 있습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삼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만이 참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밖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오면 속상해서 상대를 찾아가 따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의 의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어 줘라, 화평을 좇으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좇을 때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말하는데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므로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행하면 아주 쉽습니다.

만일 '나는 너무 버릴 것이 많은데 언제 다 버릴까?' 한다면 제일 버리기 힘든 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해 버리면 나머지 것들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큰 뿌리를 뽑으면 잔뿌리들이 한꺼번에 뽑히는 것과 같지요.

역대하 16장을 보면 남유다의 아사 왕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음이 변질돼 죄의 담을 쌓으므로 발에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라도 통회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텐데 의원들을 의지함으로 결국 죽었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의지하니 치료받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해야 죄의 담이 헐어지며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임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치료의 주님을 만나 강건한 축복을 받기 위해 계명을 지켜 행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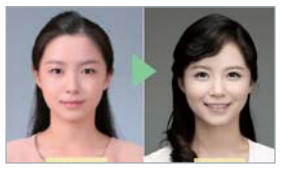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채윤석 박사
(WCDN 회장, 연세제일의원 원장)

사례 1

"수술 없이도 예쁜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크고 뚜렷한 눈은 상대에게 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는 상안검거근(levator palpebrae superioris muscle)이 거근건막(levator aponeurosis)으로 이행돼 안검피부에 부착돼 생기는데, 동양인에게는 대부분 거근건막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WCDN 이사장이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으로 쌍꺼풀이 생긴 수많은 간증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해미 자매(24)는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천상의 무용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할 때마다 인위적으로 쌍꺼풀을 만들다 보니 메이크업 시간이 많이 소요돼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재록 목사님과 악수했는데 쌍꺼풀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수한 손을 눈에 대고 기도를 한 뒤 쌍꺼풀이 생긴 것입니다. 권능의 역사를 믿고 행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서미경 권사(47)는 2014년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를 위한 기도를 받은 뒤 쌍꺼풀이 생긴 경우입니다.

기도받는 동안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통회자복을 했으며 그 순간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또한 평소에 눈이 작아 쌍꺼풀을 간절히 원했기에 손을 눈에 얹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집으로 돌아가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다가 쌍꺼풀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박은경 집사(43)는 29세 당시 믿음으로 쌍꺼풀이 생기게 해달고 기도한 뒤 무안단물을 뿌린 후 쌍꺼풀이 생긴 경우입니다.

무안단물은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역사와 같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전남 무안의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화돼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물입니다. 쌍꺼풀이 생기려면 거근건막이 생겨야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권능으로 이러한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례 2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바이러스가 퇴치됐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 강 근처에서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2015년 4월까지 25,556여 명이 감염됐으며 10,587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50~90%에 이르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생긴 나라로 2014년까지 7차례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과일박쥐에 기생하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 중간숙주인 침팬지, 고릴라, 사슴 같은 짐승들이 박쥐의 배설물이나 체액에 접촉하거나 박쥐를 섭취함으로 인해 감염되고 이러한 동물의 고기를 먹거나 접촉한 사람에게 발병합니다.

사람 몸에 들어와서 자연킬러 세포(natural killer cell)를 파괴해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혈관의 내피(endothelium)를 파괴해 혈관의 투과력(permeability)을 증가시켜 부종과 쇼크, 그리고 간세포를 파괴해 혈액응고 인자 생산을 억제해 출혈 및 쇼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조기증상으로는 열, 두통, 피로 같은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보이며 만기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발진, 눈 및 코, 입 점막에서 출혈을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특별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습니다.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보엔데 지역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세바스찬 임페토 팡고' 에쿠아퇴르 주지사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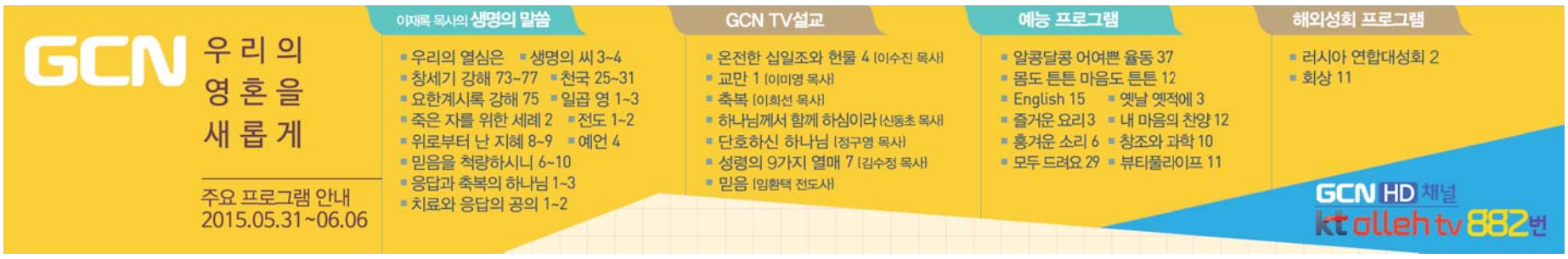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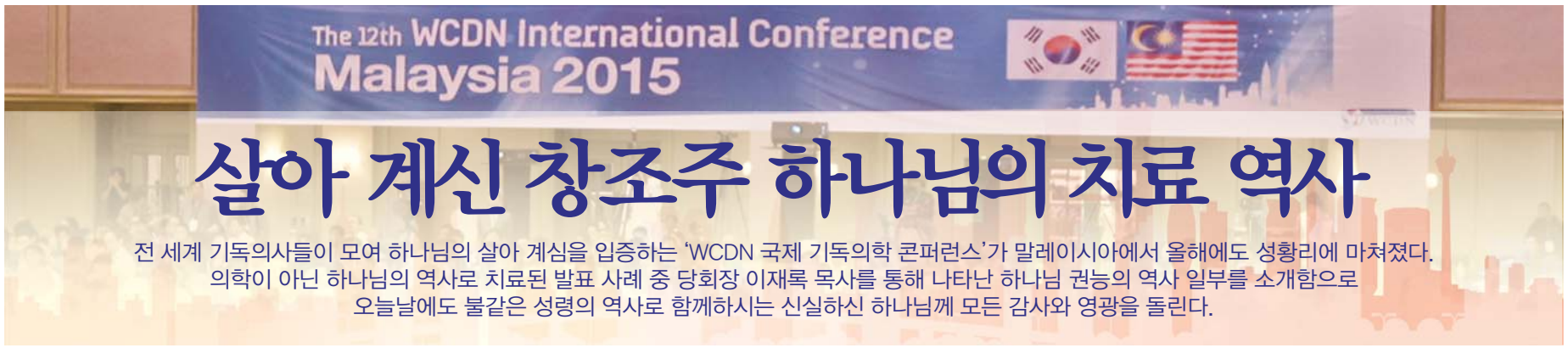
2014년 8월 11일 이카나몽고에 살던 여자 환자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일을 시작으로 한 주 뒤에는 13명이 사망했고, 9월 2일에는 53명이 감염되고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국가적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죠셉 카빌라 대통령은 에쿠아퇴르 주지사인 세바스찬으로 하여금 에볼라 전염병을 퇴치하라고 지시했으나 그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콩고킨샤사만민교회에 6년 전부터 출석한 세바스찬 주지사는 한국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한 많은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보아왔기에 서신을 보내 에볼라 퇴치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께서는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 뒤 더 이상 감염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생자가 나온 날부터 42일(에볼라 잠복기: 20일)이 지나도 발생자가 없자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WHO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로 병원에서 한 명 치료하기도 쉽지 않은 에볼라에서 많은 사람이 보호받고 퇴치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세바스찬 임페토 팡고' 에쿠아퇴르 주지사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치료 역사

전 세계 기독의사들이 모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입증하는 'WCDN 국제 기독의학 콘퍼런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올해에도 성황리에 마쳐졌다. 의학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된 발표 사례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권능의 역사 일부를 소개함으로 오늘날에도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김준성 박사 (파주 미래아동병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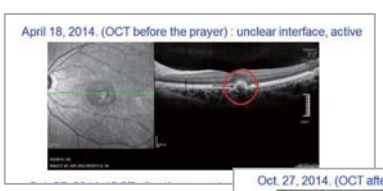
"맥락막 신생혈관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최나영 자매(17)는 평소 고도 근시 상태로 지냈는데 2013년 12월에 갑자기 좌측 안구를 통해서 사물이 틀어져 보이고 흐려 보이는 증상이 발생해 공부하기도 어렵고 모든 일상에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던 2014년 4월에 시행한 안과 검진에서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맥락막 신생혈관은 안구 뒤쪽의 맥락막에서 신생 혈관이 생겨서 망막 색소 상피층을 뚫고 자라나 중심 시력 장애, 시상변형 등의 증상을 초래하는 매우 드문 안과 질환으로, 항혈관내피성장인자(anti-VEGF)라는 주사치료로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실명하게 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안과 병원에서는 주사치료를 권했으나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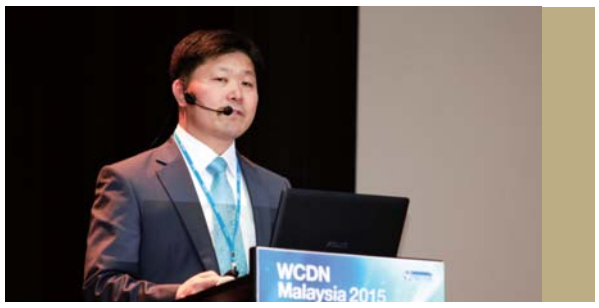
***

2014년 8월, 만민 하계수련회 교육 시간에 단에서 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를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받은 후부터 갑자기 이전의 증상들이 빠르게 소실됐고 모든 물체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이후 확인을 위해 시행한 안과 검진에서는 이전 병변이 현저히 호전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안과의사도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사치료 없이 호전된 것은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 기도받기 전
: 경계면이 불투명하고 심한 질병상태, 활동적.

▶ 기도받은 후
: 경계면이 깨끗한 상태, 비활동적.



여상훈 박사 (WCDN 총무)

"폐부종을 동반한 심장마비로 인한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났습니다"

파벨 칼믜코프 성도(48)는 심장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 2012년에는 관상동맥 우회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10월 15일, 가벼운 운동에도 가슴이 쪼여드는 통증이 있어 피아티고르스크의 센터랄 시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증상이 중간 정도였으나, 입원 중 급격히 악화돼 마약 통증치료제인 몰핀을 사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고, 심지어 급성 좌심실 심부전증이 생기고 폐부종이 생겨 생사를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열흘 뒤 급히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계속 나쁘자 담당의사는 결국 환자의 부인에게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부인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남편의 형인 유리 칼믜코프 목사님에게 전화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 하이파에서는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4주년 기념성회'가 이수진 목사님을 강사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 칼믜코프 목사님은 강사님에게 러시아 졸스카야에 사는 동생을 위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파벨 성도는 잠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으며 몰핀 도움 없이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퇴원 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폐부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지금은 건강이 회복돼 건설 일에 다시 종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가슴사진
: 급성 폐부종 발생.

2013년 10월 30일 가슴사진
: 급성 폐부종이 깨끗이 사라짐.

◀ 2013년 10월 25일 가슴사진
: 급성 폐부종이 발생한 소견 보임.

양창규 박사 (반석 내과 영상의학과의원 원장)

"수술해도 완치 안 된 비루관 폐쇄증이 사라졌습니다"

조영순 권찰(73)은 2001년부터 우측 비루관이 좁아지고 막혀 계속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기도 어려웠고 일상이 많이 불편했지요.

콧속으로 수술해 도관 삽입을 했지만 기구를 빼면 도로 눈물이 흘러나와 다시 삽입을 해야 했고, 이후에도 계속 눈물이 나와 얼굴 쪽으로 두 번의 수술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구를 뺀 후에도 계속 눈물이 나와 병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

2014년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교육 시간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를 위한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 뒤 수련회 마지막 날부터 누런 콧물이 나오더니 2주간이나 지속됐습니다. 두 주 후 주일 아침, 재채기를 했는데 갑자기 눈 아래쪽까지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우측 비루관 폐쇄 증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고 눈곱도 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비루관 폐쇄증이 단 한 번의 기도로 깨끗하게 치료됐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발표 후 많은 기독의사가 제게 와서 이 사실을 함께 기뻐해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 비루관 조영술 사진
: 조영제가 우측 비루관을 통해 비강내로 잘 통과하고 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벽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도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